

나주 부덕동~세지 국도 23호선 1년째 사용 못해 불편

지난 2023년 7월 도로 30m 구간 강우 유실
임시 도로 사용 조치 'S'형태 교통사고 우려
곡선 구간 좁은 차선 중앙선 침범 주행 빈번
"공정률 90%...도로 끝 유실 보완 노력 중"

지난해 7월 유실된 나주시 '영산포 부덕동~세지 방
향' 국도 23호선 개통이 1년여째 늦어지면서 통행객들
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임시 개통된 우회도로
가 'S'자 곡선형태로 이뤄져 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
리가 나오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부덕동 산 22-9 일원 세지면 방향 국
도 23호선은 지난해 7월24일 지속적인 강우기간에 경
사지와 인접한 도로 30m 구간 한쪽 차선이 내려앉아 유
실되면서 차량통행이 전면 통제되었다.

나주시는 도로 유실에 따른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길이 130m·폭10m 우회도로를 같은해 8월23일 임시로
개통했다.

운전자 안전을 위한 차선 유도를 목표로 PE드럼통
40여개를 설치해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해 안정적인
통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7월 나주 국도 23호선 도로 유실에 따라 임시 개
통된 'S'자 곡선형태의 임시 우회 도로. 나주시 제공

그러나 좁은 차선의 'S'자 형태 곡선 구간 도로 특성
상 대형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주행하는 사례가
찾아 맞으면 통행차량과 충돌할 위험을 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주민들은 해당구간 본도로를 1년째 사용 못해
불편하다고 호소하며 공사를 조속히 마쳐 안전한 통행
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 A(40)씨는 "야간 운전중에 전방이 잘
보이지 않으며 'S'자 형태의 차선이라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아 배수로 쪽으로 차량이 전복할 뻔했다"고 말했다.

세지면에서 영산포로 매일 병원을 다닌다는 B(61)씨
는 "유실된 본도로를 1년 3개월째 사용하지 못하고 있
다. 매일 본도로를 통해 출퇴근하는 이들도 매일같이 이
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우회도로가 아닌 본도로를 하
루빨리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통해줬으면 한
다"고 호소했다.

나주시는 유실된 본도로 복구 과정에서 도로 끝 부분
에 유실이 발생해 보완상의 이유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
다는 입장이다.

나주시 도로관리팀 관계자는 "본도로 30m 구간을 성
토 처리했다. 도로 끝 내리막 지점에서 비가 오면 유실
되는 부분이 있어 보완중이고 지면이 안정화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본도로 복구를 위해 긴급예산
10억원을 투입해 공정률 90%로 아스팔트포장을 마쳤
고 사면보완, 가드레일설치, 차선도색만 하면 개통할 수
있다"며 "정식개통시 우회도로는 운전자심터로 활용할
계획이며 미흡한 부분들을 지속 관찰해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당부
장성읍내파출소, 과속금지 등

장성 읍내파출소가 농기계, 중장비 등
교통 안전 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
다.

4일 장성경찰(서장 배상진)에 따르면
가을 농산물 수확기간중, 중장비, 농기계
로 인한 안타까운 교통(안전)사고가 매
년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장
비 대역시 안전점검·교육, 작업중 과속금
지, 주변통제 등 안전수칙 준수와 적절한
휴식으로 과로·졸음운전을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경찰서장 서한문을 배포
하고 있다

담양마을순찰근무자들이 농민·중장비
운전자, 농기계·중장비 대역업소에 직접
방문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평온한 장성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
고 있다.

장성경찰 관계자는 "지난 5년동안 전
남 지역에서 930건 이상의 농기계 사고
가 보고됐으며 71명이 사망하고 54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가을 수
확철에 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각
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성=유봉현 기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함평군, 2024년 7월 1일 기준

함평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상반
기에 발생한 토지 이동분(분할·합병·지
목 변경 등)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
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4일 밝혔
다.

이번 공시에서는 총 2113필지의 토지
에 대해 적용되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들은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
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
접 방문하거나 서면(우편 및 팩스)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가 가
격 산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0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민원봉사
과(061-320-1632)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신재현 기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화순군, 자연재난 대비

화순군은 최근 잦은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
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을 도모코자 농작물 재해보험에 약 17억
원의 예산을 수립·지원할 계획이라고 4
일 밝혔다.

가입 대상 농작물은 70종이며 지역별
가입 품목이 다르고 품목별 가입 일정이
상이하므로 농업인이 먼저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일정 등을 확인 후 가
입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을 재배하
더라도 품목별 파종 시기와 수확시기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다른 만큼, 재배작물의
가입 시기를 꼭 확인해야 한다.

신청 이후에는 현지 확인, 청약서 작
성, 보험료 수납을 마치면 보험증권이 발
급된다.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이 지난달 29일 전남도와 합동으로 요양병원 시설 대형화재 대응 훈련을 시행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요양병원 대상 안전한국훈련

화순군이 지난달 29일 전남도와 합동
으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4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화순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전남제일요양병원
·전남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3원 중계를 통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전남 최초로 요양병원 시설에서 대형
화재 대응 훈련을 진행, 고위험군 환자 대
피 및 인명구조 체계를 점검했다.

훈련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형화재
발생을 가정하여 화순군, 화순소방서, 화
순경찰서, 호남119특수구조대, 한국전
력공사, KT 동광주지점, 해양에너지, 의
용소방대, 안전보안관 등 16개 기관에서
총 220명이 참여했으며 의용소방대와 안
전보안관 80여 명이 참여해 군민이 함께
하는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했다는 평가
다.

전남제일요양병원은 화순 관내 최대
규모의 요양병원으로서 환자 안전을 최

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본 훈
련에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 지역
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주었
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훈련 장소를 제공해 주신 전남제일
요양병원에 감사드리며, 요양병원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화순군의 재난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며
"어떠한 재난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재
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소중한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함평군, 연말 맞이 공공배달앱 '떡깨비' 할인 이벤트

1인 1일 1회 한정

함평군이 연말을 맞아 공공배달앱 '떡
깨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연말 할인 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민간 배달앱 대비 중개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 '떡깨비'를
이용해 관내 음식점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
다.

이벤트 기간 함평군은 '떡깨비' 앱에서
1만5000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4000원 할인 쿠폰을 300매 가량 제공한
다. 쿠폰은 예산 소진 시까지 1인 1일 1회
한정으로 배달 및 포장 주문에 모두 사용
할 수 있다.

'떡깨비'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떡깨비'
를 검색해 다운로드하고 함평군 배달 지
역으로 설정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지역 내 가맹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들은 떡깨비 고객센터(1644-7817)를
통해 간편하게 가맹 등록을 할 수 있
다.

함평군은 연말까지 이번 이벤트를 통
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
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최근 민간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상으로 물가 상승과 소비
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떡깨
비' 이벤트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
공배달앱을 적극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
화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담양군, 무정면 은행나무 축제
9일 무정체육공원 일원

담양군 무정면은 오는 9일 무정체육공
원 일원에서 제2회 무정면 은행나무 축제
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무정면은행나무축제추진위원회(위원
장 정일남)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무정
면 천연기념물인 봉안리 은행나무를 배
경으로 향토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
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가을아래, 유정(有情)무
정'을 주제로 무정면의 풍성한 가을 정취
를 배경 삼아 공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축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미스트롯
미스김 등 각종 축하공연 및 주민노래자
랑이 펼쳐진다.

주요 체험행사로는 △은행잎 천연비누
만들기 △은행 놀이 △전통차 시음 체험
△민합축선 수목화 그리기 체험 △대나
무 공예품 전시 및 판매 △떡거리 부스 △
지역 농산물 체험 등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
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이밖에 무정면 은행나무 축제 사진 공
모전을 개최해 무정면의 다양한 매력을
담아낸 작품들을 현장 투표를 통해 총 3
점을 선정하고 1등 수상자에게는 금 반
돈을 수여한다. 수상작들은 무정면 관광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미니 골드바를 두고 진행되는 '황금 은
행임을 찾아라!' 행사도 준비했다.

이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천연기념
물인 봉안리 은행나무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과 주민에
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일남 무정면 은행나무축제추진위원
장은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 펼쳐지는 무
정면에서 소중한 분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고, 많은 분이 오셔서 무정의 자연
속에서 가을 감성을 듬뿍 담아 가시기 바
란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